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매거진 월간 〈SW 중심사회〉가 2022년 10월 100호를 발간한다. 월간 〈SW 중심사회〉는 SW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제시하는 매거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된 지난 100호 동안 어떤 이슈들을 다루었는지,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지난 7년을 돌아봤다.

정리. 편집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2015년에는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전망이 많이 등장했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시기였고,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당시 미래 창조부가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활성화에 불이 붙는 시점이었다.

또한 2015년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던 시기였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능형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았으며, 이 밖에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단어도 많이 다뤄졌다.

SPECIAL

특집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서비스



2016년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가상현실'이 가장 많이 다뤄진 단어였다. 특히, 3월에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이 이뤄져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SW중심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글로벌 동향, 개발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다양한사례들이 다뤄졌다.

또한 2016년에는 가상현실도 많이 이야기한 주제였다. 당시 VR과 AR을 중심으로 신기술 소개, 주요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경쟁과 오큘러스 등 VR 기기 등에 대한 분석이 자주 이뤄졌다.



자율주행과 핀테크

2017년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기술 등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주 언급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자율주행'과 '핀테크'가 새롭게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등장 했다.

그리고 2017년은 CES 등에서 세계 주요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면서 자율주행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던 시기 였다. 스마트키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많이 등징했다. 이와 함께 2017년은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에 열을 올리면서 성장하는 시기였다. <SW중심사회>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의 혁신과 핀테크의 정책 동향을 진단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SPECIAL

특집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2018년 <SW중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블록체인 이었다. 2017~2018년의 시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 폐의 가치는 급락했지만, 블록체인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투자와 함께 성장했다. 세계적인 기업은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디지털 경제는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다뤄진 주제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의 필요성, 빅데이 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종종 이루어졌다. 특히 인공지능과 안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언이 많았다.



글로벌 경쟁 시대

2019년에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언급 되었다. 글로벌 호황기였던 만큼 SW 관련 투자가 많았고, 글로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기였다. 특히 새로운 기술, 새로운 SW개발과 연구에 대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SW중심사회>를 통해제시되었다. 사례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클라우드, 오픈소스, 블록 체인, 자율주행, 플랫폼 등에 SW산업 전반의 내용이 고루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디지털 윤리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분량이 할애되었다.







코로나19와 비대면 교육

2019년 연말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SW산업 부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나타났지만,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이 실험되던 시기 였다. 2020년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교육이었다. 에듀테크를 비롯해, 비대면 교육,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 등 여러 교육적 시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시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인공 지능의 활용, 플랫폼 기술 등에 대한 논의도 자주 이뤄졌다.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다양한',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와 '디지털', '데이터', '인공 지능', '플랫폼'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시기였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책이 주제로 다뤄졌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같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으며, 인공지능 기술 사례, 데이터와 인공지능, 국내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소개 등도 2021년 <SW중심사회>에서 다뤘던 내용이었다.

